

이합사 교학방안에 관한 소고

유재성*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이합사 교학 방안
II. 이합사 사용 오류 유형	V. 나오는 말
III. 이합사 사용 오류 원인	

I.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孤立語)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말처럼 형태 변화에 의하여 어법단위나 어법범주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는 형태소와 단어, 또는 단어와 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합사(離合詞)가 바로 그중의 한 예이다. 이합사는 현대 중국어에서 아주 특수한 어휘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단독으로 ‘결합(合)’되어 사용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조상 ‘분리(離)’되어 중간에 기타 문장성분¹⁾이 들어가는 매우 특수한 어법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합사의 특징은 단어를 이루는 두 구성성분이 서로 ‘결합(合)’하거나 서로 ‘분리(離)’할 수 있는 것이며 ‘결합(合)’하였을 때는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지만 ‘분리(離)’하였을 때는 구가 된다.²⁾

* 영남외국어대학 중국어과 부교수

1) 중국어의 문장 구성성분은 주어·술어·목적어·관형어·부사어·보어로 모두 6가지이다.

2)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26쪽.

현대중국어에서 이합사는 수량이 아주 방대하다.³⁾ 상당수의 이합사는 자주 사용되는 상용사이며 거의 대부분이 동목식 구조의 이합사이다. 이러한 이합사는 현대 중국어 교학 및 연구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이합사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이합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합사의 속성과 판정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⁴⁾ 또한 현재 많은 교사가 이합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합사 자체의 특수한 어법현상의 복잡성과 이합사에 대한 학술연구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합사 교학은 아직도 정형화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對外漢語教學語法大綱》⁵⁾과 중국어 교재 중에도 이합사 교학에 대한 체계화되고 통일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이합사의 교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영남외국어대학 중국어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합사란 특수한 어휘를 가르쳐보면 학생들은 이런 저런 원인의 영향으로 이합사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자주 보였다. 이런 오류는 대부분 일정한 공통성과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학생이 이합사를 사용하면서 보이는 주요 오류 유형을 열거하고, 주요 오류 원인을 분석해 이합사를 어떻게 교학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합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동목식·동보식·주술식 구조로 분류되는데, 본고는 동목식 구조의 이합사에 국한하여 그 사용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목식 구조의 이합사가 양적

3) 《現代漢語離合詞用法詞典》(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5)에 4,066개의 이합사를 수록하고 있고,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5)에 3,582자가 수록되어 있다.

4) 李雪花(2010)의 <<家>에 나타난 중국어 이합사 현상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9쪽을 보면, 2010년도까지 이합사에 대한 정의·관점(단어·구·중간 형식 등)·생성 원인 등에 관한 연구 상황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5) 王還(1995), 《對外漢語教學語法大綱》, 北京語言學院出版社.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용법의 규칙은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대부분 동목식 구조의 이합사 사용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이합사 사용 오류 유형

요즘 현대 중국어교육에서 HSK(漢語水平考試)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중요시되고 있다. 《新漢語水平考試大綱HSK六級》⁶⁾을 보면, 어휘 5,000자 중에 이합사는 모두 154개가 있다. 예를 들면, 把关·罢工·拜年·帮忙·保密·报仇·报名·报道·曝光·毕业·变质·表态·播种·唱歌·操心·吵架·吃惊·吃亏·抽烟·出差·出口·出席·喘气·吹牛·辞职·打包·打架·打猎·打仗·打着·打针·达成·贷款·担心·当面·道歉·倒霉·捣乱·等级·登陆·点头·动身·动手·堵车·发财·发成·发愁·发生·发言·罚款·放手·放心·分手·付款·干杯·干活·感冒·革命·鼓掌·刮风·关心·过期·过去·害怕·害羞·滑冰·划船·合身·灰心·狠心·记得·及格·加班·减肥·见面·兼职·结婚·进口·尽力·就职·就业·鞠躬·考试·劳驾·离婚·离开·理发·聊天·留神·留学·录音·冒险·命名·纳闷·爬山·排队·跑步·拼命·破例·起草·起床·起哄·签字·请假·请客·缺席·让步·惹祸·散步·伤心·上班·上网·上当·生气·失眠·失业·失踪·受伤·受罪·刷牙·睡觉·说服·说话·随意·叹气·淘气·提高·跳舞·投票·推翻·完成·握手·洗澡·延期·要命·迎面·游泳·遭殃·造反·沾光·占先·着急·着凉·争气·挣钱·值班·注册·走私·做东·做主·作弊 등이다. 이중에 看见·睡觉는 1급 어휘 150자 중에서 나오는 어휘로 가장 낮은 단계에서도 이미 이합사가 출현하고 있다.

HSK에 나오는 이합사는 전체 이합사 중에서 아주 소량이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이합사이다. 이에 본고는 《新漢語水平考試大綱》에 나온 이합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6)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2010), 《新漢語水平考試大綱HSK六級》, 商務印書館, 42-118쪽.

1. 목적어 사용 오류

동목적 이합사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주 이것을 보통 타동사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적어가 있으면 이합사 바로 뒤에 놓는다. 특히 위의 이합사중 操心·出口·出席·辞职·达成·当面·等级·发生·发言·放心·干杯·革命·关心·灰心·结婚·兼职·就职·就业·考试·理发·留学·录音·命名·起床·缺席·让步·散步·伤心·生气·失业·失踪·说服·提高·投票·完成·握手·延期·游泳·着急 등은 한국어에서 명사나 동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중국어 실력이 초급인 학생은 이것을 습관적으로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한자어처럼 생각하여 타동사로 생각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면 동사 바로 뒤에 놓고 있다. 이것이 과오인 것이다. 중국어에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목적 이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단지 예외로 担心·放心·小心과 같은 몇몇 이합사만이 목적어가 뒤에 올 수 있다.

이밖에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의 이합사처럼 한 동사가 ‘분리(離)’됐다 ‘결합(合)’됐다 하는 경우가 없다. 이합사는 한국어에서 하나의 동사로만 대응되고 있다. 이런 동사는 한국어에서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이다. 예를 들면, “见面”은 한국어에서 “만나다”의 동사와 대응되고, 또 “理发”는 “이발하다”와 대응된다. 학생들은 한국어의 타동사 사용 방법을 기계적으로 중국어 이합사의 사용방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합사를 타동사로 생각하여 작문한 예문이다.

- (1) 어제 나는 친구를 만났다.
a. * 昨天我见面了朋友。
- (2)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a. * 你别生气我吧。
- (3)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가 나를 초대했다.

a. * 我去中国的时候, 他[·]请客[·]了我。

(4) 나는 내일 시험인데, 복습을 다 했다. 지금 나를 테스트해?

a. * 明天我有考试, 复习完了. 你现在[·]考考我[·], 行吗?

(5) 나는 영남외국어대학을 졸업했다.

a. * 我[·]毕业[·]了岭南外国语大学。

중국어에서 동목적 이합사는 자체적으로 구조가 특수하다. 동사적 형태소와 명사적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명사적 형태소 부분이 바로 목적어 성분에 해당된다. 명사적 형태소 뒤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명사적 성분(목적어 성분)이 또 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 없는 것이다. 예문(1)의 정확한 문장은 “昨天我跟朋友[·]见面[·]了。” 또는 “昨天我[·]见[·]了朋友的[·]面。”이 된다. 예문(2)는 “你别跟我[·]生气[·]了。” 또는 “你别[·]生我气[·]了。”로 말해야 한다. 예문(3)은 “我去中国的时候, 他[·]请客[·]了。”로 말해야 한다. 예문(4)는 “明天我有考试, 复习完了. 你现在[·]考考我[·], 行吗?”로 말해야 한다. 예문(5)는 “我从岭南外国语大学[·]毕业[·]了。” 또는 “我[·]毕业[·]于岭南外国语大学。”로 말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어 이합사는 목적어를 취할 때 개사구 부사어를 사용한다. “跟” “和” “与” 등은 동작행위의 참여자를 이끌 때, “从”은 어떤 장소의 통과 혹은 지나감을 표시할 때, “朝” “向”은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의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2. 보어 사용 오류

이런 종류의 오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이합사 바로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 둘째 보어의 순서가 잘못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은 보어를 잘못 삽입한 경우이다.

(6) 날씨가 아주 더워서 오늘 나는 두 번 목욕했다.

a. * 天太热了, 今天我洗澡了两次。

b. * 天太热了, 今天我两次洗澡了。

(7) 그는 이틀 동안 앓았다.

a. * 他生病了两天。

b. * 他两天生病了。

중국어의 어순을 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어는 일반적으로 술어 뒤 목적어 앞에 와야 한다. 예문(6)과 (7)에 대한 중국어 작문 a는 이합사 뒤에 동량보어와 시량보어가 잘못 온 경우이고, b는 보어가 술어 앞에 잘못 놓인 경우이다. 예문(6)에서 한국어의 “두 번”은 중국어에서 수량보어에 해당됨으로 술어 동사 “洗”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따라서 술어인 “洗”와 목적어에 해당되는 “澡” 사이 놓여 “今天我洗了两次澡。”가 옳은 중국어 표현이 된다. 예문(7)에서 “이틀 동안”은 중국어에서 시량보어로 역시 이합사 “生病”이 ‘분리(離)’되어 술어 “生”과 목적어 “病”에 사이에 놓여 “他生了两天病。”으로 말해야 한다.

이합사가 정도보어나 결과보어 및 방향보어를 동반하는 경우를 작문시 켜보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8) 당신은 이발을 잘하셨습니다.

a. * 你理发得挺好。

(9) 당신 산보가 끝나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a. * 你散步完给我打电话吧。

(10) 그가 들어오자 우리는 바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a. * 他进来, 我们马上鼓掌起来。

예문(8)는 정도보어를 사용하면서 틀리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你(理)发理得挺好。”로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정도보어를 동반하는 술어가 목적

어가 있는 경우에는 “(술어)+목적어+술어+得+정도보어”의 어순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이합사 “理发”는 술어 부분에 해당되는 “理(정리하다)” 바로 뒤에 정도보어가 와야 한다. 예문(9)는 결과보어가 잘못 놓인 경우이다. “散步”도 이합사로 “散”이 술어 부분이고 “步”가 목적어 부분이기 때문이다. 술어 동작의 결과를 보충하는 결과보어 역시 술어 부분에 해당하는 “散” 바로 뒤에 와서 “你散完步给我打电话吧.”로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예문(10)에서 “起来”는 방향보어로 “~하기 시작했다”의 의미이다. “鼓掌”은 우리말의 “박수치다”란 동사이지만 동사부분의 “鼓(치다)”와 목적어 부분인 “掌(손바닥)”이 합쳐진 이합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 역시 “他进来, 我们马上鼓起掌来.”로 바뀌어야 한다.

이합사는 ‘분리(離)’의 상태에서 수량·정도·결과·방향·시량 등과 같은 보어가 올 수 있지만, ‘결합(合)’의 상태에서는 바로 뒤에 보어를 수반할 수 없다. 이런 문법적인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3. 동태조사 사용 오류

중국어는 동사의 시제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 동사 뒤에 동태조사 “了”·“着”·“过”를 놓아서 표시한다. 따라서 이합사가 “了”·“着”·“过”를 동반하여 시제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분리(離)’의 상태가 되어 술어 부분에 해당되는 동사 바로 뒤에 “了”·“着”·“过”를 동반하고 목적어 부분은 “了”·“着”·“过” 뒤에 와야 한다. 아래 예문은 오류를 보인 작문이다.

(11) 우리가 한담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왔다.

a. * 我们聊天着, 他进来了。

(12) 그는 휴가를 내고 바로 기숙사에 쉬러 갔다.

a. * 他请假了就去宿舍休息。

(13) 그는 사과하고 떠났다.

a. * 他道歉过走了。

위의 예문(11)~(13)에서 동사 聊天·请假·道歉은 모두 이합사이다. 따라서 “我们聊着天, 他进来了。”, “他请了假就去宿舍休息。”, “他道过歉走了。”로 말해야 옳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합사의 술어 부분 동사와 목적어 부분이 ‘분리(離)’되어 동태조사가 들어가야 옳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4. 중첩 오류

중국어에서 동사는 중첩이 가능하다. 동사 중첩의 형식을 보면 단음절인 경우는 “A(一)A”이고, 쌍음절은 “ABAB”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합사를 중복할 경우에도 쌍음절이기 때문에 “ABAB”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잘못 작문한 예문이다.

(14) 식사 후 산보는 건강에 좋다.

a. * 饭后散步散步对身体好。

(15) 그의 강연이 끝났을 때 모두들 박수를 쳤다.

a. * 他的演讲结束时, 大家都鼓掌鼓掌了。

위의 예문에서 아시다시피 동사 “散步”와 “鼓掌”은 이합사이다. 이합사의 중첩형식은 일반적으로 “AAB” “A了AB” “A—AB”이다. 즉 목적어 부분에 해당되는 “B”인 “步”·“掌”은 중첩을 할 수 없고 단지 술어 부분에 해당하는 A인 “散”과 “鼓”만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饭后散散步对身体好。”, “他的演讲结束时, 大家都鼓了鼓掌。”으로 고쳐야 한다.

이합사를 타동사로 생각하는 경우, 보어와 동태조사를 잘못 동반하는

경우, 이합사를 잘못 중첩하는 경우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주 오류를 범하는 유형들이다.

Ⅲ. 이합사 사용 오류 원인

우리 학생들이 이합사를 사용하면서 오류를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체계적인 교육의 결핍

비록 초보적 수준의 교육에서 이합사에 대한 문법적인 정리는 가능하지만 중국어학계에서는 아직도 이합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어 교재에 이합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교육적인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문법지식의 교학과 비교해서 이합사의 교학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이합사의 교학은 체계화되고 통일된 규범과 목표가 없는 상태로 가르치는 사람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교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단지 각자의 문법적인 이해와 상태에 근거해서 이합사의 교학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수업중 이합사에 대해 여전히 체계적인 설명과 훈련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아주 평이하게 이합사에 대한 사용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한국어의 부정전이(負的轉移) 영향

언어학에서 제2외국어 학습자의 모국어는 목표어(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을 전이(Transfer, 轉移)라 한다.⁷⁾ 전이는 원래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미 획득한 지

식이나 지능이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론에 근거하면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도 이미 모국어인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내부적인 언어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어의 문법적 습관과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중국어의 문법을 이해할 경우 부적전이가 나타나는데 이때 보편적으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어의 이합사는 한국어에서 대부분 대응하는 동사가 있다. 예를 들면, “聊天”은 “한담하다”이고, “散步”는 “산책/산보하다”이며, “道歉”은 “사과하다”이다. 한국어로 대응되는 동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타동사이며, 또 수량·시량·결과 등의 보어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합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당연히 단어 대 단어의 1:1 대응으로 중국어의 이합사를 이해해 한국어에서 그 단어의 사용규칙을 직접적으로 중국어의 이합사 사용에 그대로 대응한다. 예를 들면, “저는 영남외국어대학을 졸업했습니다.”에서 “졸업하다”의 한국어를 중국어 “毕业”로 1:1로 대응하고, “영남외국어대학”을 목적어로 생각해 “我毕业了岭南外国语大学.”처럼 작문한다. 한국어로 보면 오류가 없는 문장처럼 작문이 잘 되어 보이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왜냐하면 “业”와 “岭南外国语大学”이 모두 동사 “毕”의 목적어로 중국어는 동사 뒤에 직접목적어를 두 개 동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毕业”는 동목적 이합사로 “毕”는 동사 부분으로 우리말의 “마치다/끝내다”에 대응되고, “业”는 목적어 부분으로 우리말의 “학업”에 해당된다. 즉 “학업을 끝내다”와 대응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직접목적어가 두 개가 동사 뒤에 온 결과로 틀린 문장이다. 마땅히 개사구 부사어 “从岭南外国语大学”를 만들어

- 7) 어떤 학습의 결과가 다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전이는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前)의 학습이 후(後)의 학습을 촉진할 때를 적극적 전이 혹은 정적(正的) 전이라 부르고, 방해하는 경우를 소극적 전이, 또는 부적(負的) 전이라고 부른다. 소극적 전이란 바로 제지현상(制止現象)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습의 전이라고 할 때에는 적극적 전이를 뜻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061&categoryId=528>)

“我从岭南外国语大学毕业了。”나 개사구 보어 “于岭南外国语大学。”를 만
들어 “我毕业于岭南外国语大学。”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모국어의 부정전이의 영향으로 초래된 오류이다.

3. 문법 지식의 부족

이합사 사용의 오류가 가장 빈번한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이합사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미흡해서 초래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한국
어 모국어의 부정전이의 영향을 받고 또 이합사 교학이 심도 있게 진행되
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합사를 잘못 사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
라고 생각된다. 만약 이합사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습득했고 또 이합사 사
용의 습관을 형성해 중국어 이합사 표현의 어감을 갖추었다면 사용 오류
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마치 중국 사람이 어떻게 이합사를 사용하든 자유
자재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거의 오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중국인은
이합사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
지만 오류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중국 사람과 다르게 이합
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할 때 오류를 보이고 있다.
보통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를 동반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합사 뒤에
바로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다. 또 중국어 술어는 뒤에 수량보어·시량보어
등이 올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합사 뒤에 바로 보어를 동반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 학생이 이합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오류를 줄이기 위
해서는 이합사의 독특한 문법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이합사의 독특한 표현 어감을 형성해야 한다.

IV. 이합사 교학 방안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합사의 교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교학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이합사를 중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 보다 효율적인 교학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이합사 교학 중시

현재 이합사에 대한 연구 상황은 이합사의 교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합사는 현대 중국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면서도 아직까지 그의 대한 연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합사의 존재는 중국어 어휘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나타내며 또한 중국어 표현의 독특한 매력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 중시해 교학에 힘써야 비로소 학생들이 생동감 있고 독특한 이합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교재를 보면 이합사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어법 설명 또한 부족한 경우가 있다. 우리 학생들은 중국어 어법을 배울 때 특히 이합사란 어법을 배울 때 대부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다. 어떤 교사는 강의 할 때 책에 쓰인 데로 읽고 쓰고, 다른 보충 설명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용해 이합사 사용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교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다른 예시에 대해 적당한 보충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⁸⁾ 만약 교사가 이런 점을 느끼지 못하고 대충 지나간다면 우리 학생들은 반복적인 사용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중국어 수업에 있어서 이합사에 대한 우선적인 중

8) 朴善嬰(2012)의 《動句式 離合詞에 對한 研究》(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0-74쪽을 보면, 동목식 이합사의 확장 유형 및 이합사와 한국어의 대응관계표를 만들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합사 교학 시 참고할 만하다.

요성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2. 표기 방식의 구분

기존의 중국어 교재를 보면 이합사에 대한 표기 방식은 대부분 일반 동사와 거의 구별이 없다. 앞의 오류 분석 원인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이합사를 일반 타동사로 잘못 인식하여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합사와 일반 동사와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표기방식부터 구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어 교재는 이합사의 품사를 표기하지 않고 있고, 또 한어병음 표기도 다른 단어처럼 아무런 표시 없이 진행되고 있다. 품사 표시는 이합사가 단어인지 구인지 아니면 그 중간형식인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어병음의 표기는 보다 신중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다. 《現代漢語詞典》을 보면,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전도 이 표기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 이합사의 한어병음을 표기할 때도 이를 준용하면 좋을 듯싶다. 아니면 최소한 동사 부분과 목적어 부분의 형태소의 한어병음을 한 칸 띄어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6) 睡觉 shuì//jiào 잠자다
睡觉 shuì jiào 잠자다

이렇게 표기해야 최소한 학생들은 이 단어가 이합사란 것을 알고 단어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3. 체계적인 어법 정리

현재 중국어 초급교재를 보면 대부분 “讲了话” “请了假” “见见面” “吃

着饭” 등과 같은 ‘분리(離)’ 형태의 이합사가 출현하는데, 단순한 ‘분리(離)’ 유형이긴 하지만 이합사의 용법이나 설명에 대해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급교재에서는 좀 더 확장된 “他生了两天病” “帮了我的忙” 등과 같은 문형이 출현하지만 역시 독립적으로 어법 설명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이합사는 한 교재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재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이합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합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합사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사용되는데 보통 교재에는 가장 자주 쓰이는 예시 하나만을 명시해 놓는 경우가 태반이다. 교사는 자주 사용되는 다른 예문을 반드시 보충 설명해 줘야 한다. 즉, 교사는 한 이합사를 가르친 후 다시 체계적으로 이합사의 용법과 특성을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이합사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면 더욱 심도 있게 교학을 진행해야 한다.

4. 심화학습

중국어에서 이합사의 수량은 상당히 많고 또한 이론도 분분하다. 교학 중에는 이론적인 논쟁부분은 피하고 이합사 용법에 관한 범위만을 교학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합사의 교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를 확장해서 사용하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오류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초급 대상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합사의 개념과 간단한 용법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문형을 강조해 학생이 규칙적인 특수한 용법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합사가 기타 성분과 합쳐서 확장 사용될 때 우선적으로 간단한 ‘분리(離)’ 상황부터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见了面”(동태조사)·“见他的面”(관형어)·“洗一次澡”(동량보

어)·“睡着” (결과보어) 등과 같이 간단하게 확장 된 ‘분리(離)’ 상황부터 설명하는 게 좋다. 중고급 단계에서는 목적어가 출현할 때 개사를 사용해 이합사 앞에 개사구 부사어를 만들어 표현하는 방법과 이합사의 ‘분리(離)’ 상황에서 정도보어·수량보어·방향보어 등이 오는 경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理)发理得很好”(정도보어)·“鼓起掌来”(방향보어)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문형이다.

또한, 동목식 이합사가 기타 성분을 동반하면서 ‘분리(離)’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 것도 설명해 줘야 한다. 먼저 대다수의 비지속성 동목식 이합사는 중간에 시량보어를 삽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7) 나는 졸업한 지 3년 되었다.

- a. * 我毕了三年(的)业。
- b. * 我毕业毕了三年。
- c. 我毕业三年了。

위의 예문(17)의 정확한 표현은 c이다. 이런 종류의 이합사는 毕业·辞职·动身·结婚·就业·就职·离婚·失业 등이 있다. 이런 이합사는 동작 발생이 순간적으로 동작이 한순간에 끝난다. 따라서 동작의 지속성을 표시하는 동태조사 “着”나 부사 “正”·“正在” 등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없다. 또 심리·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担心·放心·关心·害怕·着急 등의 이합사는 ‘결합(合)’ 상태에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 성분을 동반한다. 예를 들면,

(18) 그를 걱정한다.

- a. 担心他。(목적어)

(19) 걱정되어 죽겠다.

- a. 担心得要命。(정도보어)

- (20) 하루 **종일** 걱정하다.
a. **担心一天**。(시량보어)
- (21) 한 **번** 걱정하다.
a. **担心一下**。(동량보어)
- (22) 걱정하기 시작하다.
a. **担心起来**。(방향보어)
- (23) 걱정이 끝나다.
a. **担心完了**。(결과보어)

이합사를 가르치면서 체계적으로 이런 예외 용법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면 이합사 사용 오류 감소 및 정확한 표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대비교육 진행

중국어에서 이합사가 한국어에서 대응되는 단어를 찾아서 비교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합사의 용법을 이해하고 정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4) 저는 영남외국어대학을 **졸업했습니다**.
a. 我从岭南外国语大学**毕业**了。(개사구 부사어)
- (25) 우리 **산책하러** **나갑니다**.
a. 我们出去**散步**吧。(동사중첩)
- (26) 어제 밤에 저는 일곱 시간을 **잤습니다**.
a. 昨天晚上我**睡**了八个小时的**觉**。(시량보어)
b. 昨天晚上我**睡觉**了八个小时。(시량보어)
- (27) 그녀는 **춤을** 자주 잘 **춥니다**.
a. 她**(跳)舞**跳得非常好。(정도보어)

- (28) 그와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a. 这是第一次和他**见面**。(개사구 부사어)
- (29)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a. 今天我**来请客**。

대비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게 함으로써 이합사를 학습시킬 수 있다.

또 이합사와 일반적인 동목구를 비교 교육시켜서 설명을 한다. 일반적인 동목구 용법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해 이합사가 동태조사·방향보어·시량보어·결과보어·동량보어 등을 동반하는 구형 용법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0) 나는 어제 **컴퓨터를 했다**.
 a. 我昨天**玩电脑**了。
- (31) 나는 어제 **컴퓨터를 한 시간 했다**.
 a. 我昨天**玩了一个小时(的)电脑**。
 b. 我昨天**玩电脑玩了一个小时**。
- (32) 나는 **잠을 잤다**.
 a. 我**睡觉**了。
- (33) 나는 **잠을 한 시간 잤다**.
 a. 我**睡了一个小时(的)觉**。
 b. 我**睡觉睡了一个小时**。

위의 예문에서 “玩电脑”는 일반적인 동목구이고, “睡觉”는 동목식 이합사이다. 시량보어를 이용해 동작을 진행한 시간의 양을 표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동목구나 이합사의 구형 용법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합사를 설명할 때 일반적인 동목구의 어법 지식을 활용해 이합사의 ‘ 분리(離)’ 확장되는 용법을 설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반복 연습

학생이 보다 빨리 이합사를 이해하고 옳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는 이합사의 용법을 가르치면서 바로 연습도 시켜야 한다. 즉, 교사는 수업 때 구체적인 언어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의 강도를 높혀야 한다. 교사는 이합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개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이를 모방해 작문하게 하여 정확하게 이합사를 사용할 수 있는 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모방 훈련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합사의 사용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연습할 때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34) A: “朋友生了谁的气?”

B: “朋友生了他的气。”

(35) A: “他帮了谁的忙?”

B: “他帮了我的忙。”

(36) A: “帮了几次/几天忙?”

B: “帮了两次/两天忙。”

계속적인 반복 연습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이합사의 용법을 숙지하게 되어 사용 오류를 확 줄일 수 있다.

V. 나오는 말

이합사는 현대중국어에서 아주 특수한 어휘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단독으로 ‘결합(合)’되어 사용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조상 ‘분리(離)’되어 중간에 기타 문장성분이 들어가는 매우 특수한 어법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합사의 특징은 단어를 이루는 두 구성성분이 서로 ‘결합(合)’하거나 서로 ‘분리(離)’할 수 있는 것이며 ‘결합(合)’하였을 때는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지만 ‘분리(離)’하였을 때는 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초급중국어 학습자는 이 이합사를 그냥 타동사로 생각하여 목적어를 바로 뒤에 동반하거나, 아니면 보어를 동반할 때도 ‘분리(離)’ 확장하여 기타 성분을 사이에 넣지 못하고 그냥 이합사의 앞뒤에 놓는 오류를 범하기 일수다.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합사란 특수한 어휘를 가르쳐보면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이합사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런 오류는 대부분 일정한 공통성과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이는 이합사의 대표적인 오류의 주요 유형을 보면, 이합사를 타동사로 여겨 바로 뒤에 목적어를 또 동반하는 경우, 보어를 동반하면서 순서나 위치를 잘못 놓는 경우, 동태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합사를 잘못 중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럼 왜 이런 사용 오류를 보이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교육적인 환경이 비교적 열악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문법 교육과 비교해서 이합사의 교육은 아직도 체계화되고 통일된 규범이 없는 상태로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문법적인 이해 상태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수업중 이합사에 대해 여전히 체계적인 설명과 훈련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중국어를 표현할 때 모국어에 대한 마이너스전이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1:1 대응하지만 몇몇 이합사는 한국어에서 이미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보

다 더 큰 원인은 이합사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사용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 표현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합사의 사용 오류를 줄이려면 학생이 이합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합사의 독특한 문법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야함과 동시에 이합사의 독특한 표현 어감을 형성해야 한다.

끝으로 이합사의 교학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우선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다. 중국어에서 이합사는 아주 독특한 어휘로 이로 인해 아주 특수한 어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부터 인식해 이합사 교학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합사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산발적으로 한두 개씩 출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가르친 후 다시 체계적으로 이합사의 용법과 특성을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이합사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면 더욱 심도 있게 교학을 진행해야 한다. 또 이합사의 '분리(離)' 확장될 때의 어법은 일반적인 어법 상황과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목구 용법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해 이합사를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1979.
- 楊慶惠, 《現代漢語離合詞用法詞典》,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5.
- 王還, 《對外漢語教學語法大綱》,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5.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2000.
- 허성도,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2005.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5.
- 金宣希, <對外漢語教學中離合詞處理原則淺析>, 《中國語文學論集》 제40호, 中國語文學研究會, 2006.

- 李錦姬, <이합사 구문 분석>,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1호, 中國語文論譯學會, 2007.
- 찰스 N.리·샌드라 A.톰슨, 《표준중국어문법》(수정판), 한올아카데미, 2007.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大綱HSK六級》, 商務印書館, 2010.
- 李雪花, <<家>에 나타난 중국어 이합사 현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朴善嬰, <動目式 離合詞에 對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中文提要>

離合詞是現代漢語中一類很特殊的詞, 說其特殊, 是因為它既可以作為一個詞單獨使用, 同時在結構上又可以分離加入其他成分。離合詞在現代漢語中數量不少, 且有相當數量的離合詞是出現頻率很高的常用詞, 大部分是動賓式離合詞。

關於離合詞語法性質, 爭議頗多, 還沒有定論。雖然目前很多教師都在努力尋找離合詞有效的教學方案, 但是因離合詞自身的複雜性而使此教學還缺乏定性的理論根據, 造成了漢語教學中的難題, 離合詞教學相對來說略顯薄弱。

韓語與漢語是兩種不同的語言, 在語法、詞匯等各方面都存在着很大差異, 由于多種原因的影響, 我們學生在離合詞習得過程中常出現偏誤, 并且大部分的偏誤有共同性和規律性。本文列舉了其離合詞的主要偏誤類型, 例如: 離合詞錯帶賓語、補語錯加或錯序、後面錯加動態助詞與錯誤重疊等等。此後探討了形成偏誤的主要原因, 并且提出了相應的教學方案, 以期待今後減少我們學生離合詞習得偏誤有所幫助。

주제어 : 離合詞, 分離, 結合, 偏誤, 原因, 教學方案

